

# 광주 '사건 브로커' 파문 일파만파 현직 치안정감·치안감 수사 대상

검찰 수사 칼날 경찰 고위층으로  
인사청탁 비리·수사 무마 등 의혹  
브로커 운영 업체 지자체 납품거래  
공사수주 비리 수사 확대 가능성

검·경 인맥을 내세워 '사건에 도움을 주겠다'며  
사기 용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 브로커'  
를 수사하는 검찰의 칼날이 현직 경찰 고위층으로  
향하고 있다.

또 사건브로커가 운영하는 업체가 전남지역 지  
자체와 납품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돼 공사수주와  
관련한 수사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  
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A치안감과 B치안정감  
을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치안정감  
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 바로 아  
래 직급이다.

검찰은 A치안감에 대해서는 인사청탁 비리와  
수사 무마 혐의를, B치안정감에 대해서는 청탁금  
지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검찰은 사건브로커 C(62)씨가 광주경찰청장을  
지난 A치안감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보  
고 있다. C씨는 수사기관 청탁을 대가로 다른 공

범과 함께 가상자산 사기 사건 용의자로부터 고가  
외제차 등 18억54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상태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 재임 당시(2021년 7월  
~2022년 6월) 경찰 승진인사 비리와 가상자산 사  
기 사건 수사 개입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광주경찰청으로부터 A치안감 재임 당  
시 인사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사기사건 연관성도 수사망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A치안감 재임기인 2021~2022년 서울과 광주  
경찰청 등지에서는 가상자산 사기범(별도 구속 기  
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실제 브로커 C씨는 고위직 경찰관들과 가상사  
건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2021년 서울 강남구 고  
급 한정식집에서 자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식당은 만찬기준 1인당 14만 5000원, 21만원, 27  
만원을 받는 고급 한정식집이다.

이들은 주로 만찬을 함께 했으며 C씨, A치안감  
과 사건무마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무관 D씨, 현  
직인 B치안정감도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골프 대회 등으로 경찰 고위직 등과 친분  
을 쌓고 이를 토대로 수사·인사를 청탁하는 브  
로커 행각을 하거나 지자체 사업을 수수한 의혹을 받  
고 있다.

광주지검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초기부터 현  
재까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사에 개입할 위치도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C씨가 운영중인 업체가 지  
자체에 납품한 사실도 확인됐다.

광주일보가 확인한 결과 C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선 법정에서 현재 운영중이라고 밝힌 E업  
체가 전남의 한 지자체에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3차례 물품을 납품했다.

E업체는 목재데크 자재를 납품했고 총 계약금  
은 2억원에 달했다.

C씨가 운영중인 업체는 이밖에는 여러 곳이 있  
고 지자체는 설계단계에 자체 납품업체를 C씨 업  
체에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방법 등을 동원한 것으  
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C씨를 변호사법 위  
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당시 지자체 수주 비리와  
관련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 브로커' 수사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다년  
간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C씨를 검찰이 구  
속기소하면서 본격화했다.

C씨는 골프 대회 등으로 경찰 고위직 등과 친분  
을 쌓고 이를 토대로 수사·인사를 청탁하는 브  
로커 행각을 하거나 지자체 사업을 수수한 의혹을 받  
고 있다.

광주지검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초기부터 현  
재까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수시 중학생 태운 수학여행 버스 화재  
지난 17일 여수시 소라면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관광버스 뒷바퀴에서 불이나 소방관들이 불을 끄  
고 있다. 수학여행에 나선 중학생 등을 태우고 청주에서 출발한 관광버스는 여수를 방문하던 길에 사고  
가 났다. 화재당시 관광버스에는 학생과 교사 등 31명이 탑승했고 이 중 학생 1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으로 이송됐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소방 제공)

## 상습탈세 집행유예 받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 벌금 180억원은 하루 1600만원 '황제 노역'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가 탈세혐의로 징  
역형을 선고받고 180억원대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하루 노역금액을 1600여만원  
으로 산정해 '황제노역'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하  
기는 어렵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80억 6750만원을 부  
과하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를  
1650만원으로 환산해 1095일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80억62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총 1821억원의 도박 자금을 입  
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입금액의  
일부만 수수료로 지급 받았으며 수수료를 기준으  
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박 대금 입금액 전액을 공급가격으  
로 하되 매입 세액의 공제 없이 부가가치세 포탈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며 "A씨가 불법 사  
이트 운영과 관련해서는 2021년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  
했다"고 판시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  
치할 수 있는 '환형 유치' 제도 때문이라는 것이 법  
조계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 법원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했다면 원청이 퇴직금 지급해야"

협력업체에 근무하던 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다  
면 퇴직금도 원청 사업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양섭)는 A씨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  
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9  
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퇴직금 2900여 만원을  
금호타이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10월경부터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B사에 입사해 2020년  
6월까지 일했다. A씨는 금호타이어 작업현장에

파견돼 일했고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  
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는 근로자 지위 확  
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7년 승소했다.

A씨는 "2003년 10월부터 2년이 경과한 2005년  
부터 직접고용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020년  
퇴직 후 받은 정산 퇴직금중 미지급액 2900여만원  
을 달라"고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A씨가 2009년 4월 다른 협력  
업체에 입사했는데 이 경우 구 파견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06년 개정된 파견법이 적용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경찰 왜 이러나...절도 현행범 호송 중 또 놓쳐

지구대 피의자 집단탈주 반년만에  
수갑 풀어준 틈타 경찰 폭행 도주  
대학교 기숙사에서 3시간만에 검거

경찰이 호송과정에서 절도 현행범을 놓친 뒤 3  
시간여만에 다시 검거했다.

지구대에서 피의자가 집단으로 탈주한 사건이  
발생한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용의자가 탈주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6시경 절도 혐  
의로 현장에서 체포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A  
(19)씨가 탈주해 3시간여만인 밤 9시 20분경 다  
시 붙잡혔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생활용품 판매  
점에서 USB와 문구류 등 2만 8000여원어치를 훔  
치려다 점주에게 적발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됐다.

A씨는 동부경찰서로 호송된 직후 경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지구대 경찰관 얼굴을 폭행한 뒤 달아  
났다.

당시 차에는 다른 경찰관 1명이 더 있었으나, 운  
전대를 잡고 있어 A씨의 도주에 대응하지 못한 것  
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하고 CCTV 분석을 거  
친 끝에 밤 9시 20분경 광주시 동구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절도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  
난 9월 여학 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한 유학생으로  
불법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호송 중 경찰차 안에서 A씨의 수갑을  
풀어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폭행·도주·극단적 선택  
시도를 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경찰은 전  
했다.

현행 경찰 규칙상 호송 과정에서는 질병의 치  
료, 용변, 식사 때 한 쪽 수갑만 풀어줄 수 있고 호  
송이 끝날 때까지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  
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경찰은 "최근에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인권을 지  
켜줘야 하기 때문에 차에서 잠시 수갑을 풀어줬  
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최근 경찰의 실수로 광주에서 피의자가  
도주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에는 광주시 북구에서 마약 투약 혐의  
로 붙잡힌 20대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핑계로 지구  
대 밖으로 나갔다가 주책가 담을 넘어 도주해 2시  
간만에 다시 붙잡혔다.

지난 6월에는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월곡지구대  
에서는 불법도박 등 혐의로 체포된 베트남 국적 외  
국인 23명 중 10명이 지구대 창문 틈으로 도주하  
는 사건도 발생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어떤 피의  
자라도 도주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하  
는데, 경찰관이 안이한 생각으로 호송 업무를 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현행법은 수갑을 채  
우는 것을 강압적인 수사로 보고 너무 많은 제약을  
걸고 있어 수갑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 터라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